

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,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훈련

입력: 2026.08.20 17:32 / 수정: 2026.08.20 17:32

공급경보 가정 신속한 대피 및 일상생활 안전교육



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가 을지연습과 연계해 공급대비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. / 한국농어촌공사

[더팩트 | 전남광주=주남현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20일 을지연습과 연계해 공급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훈련은 공급 상황을 가정해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전 직원이 지정된 대피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, 경보 발령 시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.

훈련 이후에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 요령을 주제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했다. 화생방 경보 및 핵경보 발령시 행동 요령을 비롯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내용을 교육했으며,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했다.

교육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까지 폭넓게 다루며, 직원들이 재난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.

김철상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은 "재난과 비상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"며 "이번 훈련과 교육을 계기로 직원 모두가 안전수

칙과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,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"고 당부했다.

bbb2500@tf.co.kr